

고요함이 선물한 자유

피아니스트 최희연





팬데믹이 준 멈춤의 시간은 많은 연주자들을 군중 앞에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내면의 깊은 관찰은 그들에게 예술적 영감이나 새로운 동기부여를 선사했을지도 모른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에게 베토벤은 변치 않는 음악적 샘물이자 열쇠이다. 그녀는 혼란의 시대 속 진정한 고요함을 찾았고 베토벤의 위대한 소나타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한다.

글 김희선 인터뷰보조 김아현 사진제공 PRM, 유니버설뮤직, 더하우스콘서트, 금호문화재단, 서울시향 외

The Great Sonatas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소나타로 꼽히는 이 작품들을 출시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무대에서 연주할 때 여러 번 경험했던 청중들과의 특별한 교감의 기억들이 이 음반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 <The Great Sonatas> 앨범 노트 중

2019년 1월, 첫 베토벤 소나타 앨범을 발매했던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오는 10월에 그에 이은 새로운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다. 11월 7일에는 발매 기념 리사이틀도 가질 예정이다. 베토벤의 세 중기 소나타(Op. 31-2, Op. 53, Op. 57)를 담은 이번 음반의 제목은 <The Great Sonatas>. 각각 ‘폭풍’, ‘발트슈타인’, ‘열정’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세 곡은 베토벤의 소나타 중에서도 잘 알려지고 많이 연주되는 작품들이다. 이미 두 번의 베토벤 소나타 사이클을 마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그녀가 특별히 이번 소나타들에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great의 의미가 작품 자체의 위대함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제가 이 곡들을 연주했을 때 청중들과 소통하는 그 교감도의 특별함,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공연 중 느꼈던 소름 돋는 것 같았던 느낌, 흡인됐던 몇몇의 특별한 기억들이 이번 음반에 수록한 세 소나타와 용량 제한으로 실리지 못한 두 개의 소나타(Op. 27-1, Op. 27-2) 모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려진 곡들이라 당분간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팬데믹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인이 위축되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용기를 냈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다. 더구나 그녀는 첫 번째 베토벤 소나타 레코딩을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5년 녹음 후 발매될 때까지도 3년여가 흐를 만큼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가.

“첫 녹음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녹음도 베를린에서 연구년을 지내는 2019년에 진행했는데 그 해 말경 녹음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앨범 출시와 세 번째 녹음 일정 및 레퍼토리를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니 중국 발 코로나 뉴스가 들리기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도 팬데믹이 덮쳤지요. 그러면서 잡혀 있던 모든 스케줄들이 취소되고 국제선 비행기도 점점 닫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거의 탈출하듯 허겁지겁 3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2주 격리에 들어갔는데 앨범 발매는커녕 모든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 TV에서 슈퍼마켓 화장지가 동난다는 뉴스를 보고 문득 ‘음악은 뭐지? 화장지보다도 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세계적으로는 공연이 멈추었던 2020년, 팬데믹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어느 음악인처럼 피아니스트 최희연 또한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학교 수업까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은 늘어났다. 그녀가 말한 용기는 이 고요의 시간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사람이 중력을 확 느끼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할 것도 없는데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계기로 이 유명한 소나타들의 연주를 준비했는데

확실히 연습하는 시간 그리고 내면세계로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유학시절이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엔 세 번째 레코딩에 이 소나타들을 넣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해도 되겠다’는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고 아직 코로나 기세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녹음에 대한 결심을 실현하고자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독일로 출국할 날짜를 잡았다. 비록 원래 일정보다 몇 달 늦어졌지만 2020년 10월, <The Great Sonatas>의 녹음은 그렇게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녀에게 내면의 안정감을 주고 용기를 내도록 만든 ‘중력을 느끼는 시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gravity, 중력은 사람의 마음에 무게중심이 잡히는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란 게 인생으로 말하면 일종의 고난이예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 중력 같은 중심축이 느껴지거든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과 자유스러움을 품은 상태를 말하죠.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로여서 중심을 못 찾으면 힘이 들어가고, 쓸데없는 긴장이 생기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거든요.”

폭풍 속 새로운 길을 가다

“베토벤의 소나타는 결코 편하지 않다. 초기 소나타 안에도 벌써 돌출하려는 성향이 다분하고 중기부터는 소나타형식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기 이후부터 그의 소나타에는 극적인 요소가 많고, 그 자체가 하나의 심리극이다. 특히 이 앨범에 담긴 세 곡이 그렇다.”

- <The Great Sonatas> 앨범 노트 중



더 하우스 콘서트 '2020 줄라이 페스티벌'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말처럼 내면의 중심이 고난에서 온다면 베토벤 음악의 단단함은 그의 고단한 삶에서 왔으리라. 음악사적 관점으로 들어가 그의 음악이 지금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사실 베토벤의 이러한 도전과 실험은 음악사를 뛰어넘어 인류의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최희연의 이번 새 음반에는 베토벤의 이 위대한 도전이 활발히 시도된 중기의 작품들이 담겨 있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긴 후 부터를 베토벤의 중기로 보는데 저는 그가 유서를 쓴 후 자살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어요. 유서는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않고 서랍 속에 보관되었고 결국 그는 삶을 선택했죠. 그 이후 베토벤에게서 이 앨



범에 실린 세 소나타들을 비롯하여 놀라운 작품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중기 이후의 피아노 소나타를 보면 모두가 전에 없던 실험적 작품들입니다. ‘폭풍 소나타’는 획기적인 첫머리와 레치타티보, 페달링을 가지고 있고, ‘발트슈타인 소나타’의 1악장 시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제인데다 2악장은 3악장에 붙여야 하나 싶을 만큼 짧지만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열정 소나타’는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또 남다른 특징이 있으니 베토벤의 작품 중 승리가 아닌 비극으로 끝나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곡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토벤 입장에서는 관습을 깨뜨리는 시도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녀는 베토벤의 음악적 모험의 결과물인 ‘폭풍, 발트슈타인, 열정 소나타들’이 듣기 편한, “즐기세요”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곡들이 소위 ‘유명한’ 소나타로 불리는 이유는 작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높은 완성도와 드라마틱 한 요소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주자에게 완벽한데다 유명하기까지 한 작품을 녹음한다는 일은 부담이 따르는 법. 이제 그녀가 이 소나타들과 경험했던 ‘특별한 교감’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진다.

“‘발트슈타인 소나타’는 고등학교 때 실기 시험 곡이었는데 3악장을 치면서 처음으로 ‘high feeling’을 느꼈어요. 무아지경일 정도로 연주에 깊이 몰입한 건데 그때는 ‘이게 무슨 상태지?’하며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위원 한 분이 지나가시며 100점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콘서트에 꼭 초대해 드려야 할 분이네요.(웃음) 발트슈타인은 그런 추억이 있고요, ‘열정 소나타’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첫 사이클을 할 때, 거

의 서른 살이 다 돼서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첫 번째 공연의 파이널 곡으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지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바늘이 하나 톱 떨어져도 놀랄 것 같은 그런 고요함과 집중도가 금호아트홀을 채웠었어요. 3악장의 파이널 코드가 끝났을 때 큰 박수가 들려오는데 마치 엄청난 붓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막혀있던 것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유럽에서 쉴 때도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기뻐했습니다. ‘폭풍 소나타’는 제가 베토벤 사이클을 하는데 참 중요한 밑거름을 주셨던 레이그라프 선생님의 18번 곡이었어요. 선생님께서 2002년에 내한하셨을 때 이 소나타를 연주하셨는데 참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비르투오조가 아닌 완전한 구성력에서 나오는 파워였는데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영감을 주었어요. 이 곡 또한 사이클 때 처음 연주했는데 잔잔하게 마침에도 곡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이 무엇을 받았는지 끝나자마자 제게 던져주는 듯한 환호가 굉장했어요.”

베토벤은 유익한 음악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면서 찾은 키워드는 숭고함입니다.

숭고함의 의미가 현대로 오면서 많이 잊힌 것 같아요.

베토벤의 음악이 추구하는 에센스가 숭고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것 역시 숭고함, 숭고의 정신이죠.”

- 2019년 1월 음반 발매 간담회에서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음악 여정에서 베토벤은 가장 중요한 작곡가이다. 그녀는 약 10년의 간격을 두고 베토벤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첫 사이클인 금호아트홀 초청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국 연주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고 이때의 8

회 공연은 전석 매진 기록을 남기며 그녀에게 난파음악상과 올해의 예술상(한문위, 2005)을 안겼다.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사이클은 앙상블로 확장하여 이미경, Tsuyoshi Tsutsumi, Peter Stumpf, 김수빈, Ulf Wallin, Wen-Sinn Yang, 송영훈과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소나타와 변주곡,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연주하였고 독일, 스웨덴, 미국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두 번째 사이클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음반 작업을 통해 베토벤의 서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베토벤의 음악을 어떻게 마주했고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젊었을 때는 베토벤에 대한 경외심이 컸습니다. 베토벤이 쓴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뛰고 마치 그가 제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중반을 훌쩍 넘었고 베토벤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 ‘나랑 참 닮은 모습이 많구나’하고 느끼는 중입니다. 첫 전곡 연주 때는 베토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두 번째 전곡 연주 때는 내 목소리와 베토벤 음악이 만나서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어요. 지금은 베토벤을 좀 더 잘 듣고 싶은 마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편한 건 아니지만 베토벤의 언어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어요.”

사실 한 작곡가의 세계에 깊이 또 오랜 시간 몰입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 있다. 악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나를 찾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연주자들이 ‘스페셜리스트’라는 다소 버거운 호칭을 감내하는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나 보상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베토벤, 그중에서도 소나타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굉장히 유익해서요! 저는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이 작곡가들이, 어쩌면 인류가 발견한 가장 대단한 음악적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베토벤이 이전의 소나타 형식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소나타 형식에 새로운 변형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피아노를 넘어 오케스트라까지 담을 수 있도록 심포니에도 적용을 하죠. 한 마디로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를 공부하고 나면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열쇠를 얻은 것과 같아요. 독일권 작곡가의 작품만이 아니라 러시아 레퍼토리, 프랑스 레퍼토리까지, 그중에서 특히 소나타 형식으로 된 것은 대부분 풀리게 되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베토벤을 공부해서 깊이 들어갈수록 얻어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지겹기는 했어요. 이혼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웃음) 거리를 두고 다른 작곡가로 간 적도 있었는데 여기 샘플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 다시 돌아올 수 밖예요. 그러면서 점점 오랜 부부같이 친밀해지더니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 신나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베토벤을 계속 잡고 있는 이유가 그로 인해 확장된 소나타 형식에 있다는 답변이 의외였다. 베토벤 음악이 주는 감동을 불굴의 인생 스토리나 인류애를 향한 메시지에서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일까. 좀 더 이야기를 듣고자 베토벤의 음악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주자와 청자(聽者) 모두에게 사랑 받는 이유가 그 형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트리오가 베토벤 전곡에 도전하고 있죠. 아 콰르텟! 콰르텟도 결성이 되면 베토벤부터 하잖아요. 베토벤 콰르텟도 심포니도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곡들이니까. 그래서 음악의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듣는 분들에게도 사실 베토벤은 쉽지 않아요. 틀어 놓고 다른 일하는 음악이 아닌 각 잡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 음악이죠.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놀이라 청자들 중 지적인 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베토벤이 좋을 것 같고 혹여 형식에 대해 문외한이더라도 뭔가 논리적으로 딱 떨어질 때 사람은 굉장히 시원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승리로 끝나는 음악이 베토벤이라, 그 점이 카타르시스를 주고 빠지게 만들죠.”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시리즈(2012.10.)

음악이 나의 언어가 되도록

“걱정적이고 감정이 충만하며 모든 디테일이 설득적이면서도
함축성 있게 다듬어낸 연주, 자신감과 자제를 동시에 담은
몸짓, 거기엔 완벽주의자적인 자세는 없다.”

-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지>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녹음 작업을 살펴보니 베토벤 소나타 외에도 리스트 파가니니 에튀드 전곡 음반(LP), 쇼팽 에튀드 전곡 음반(CD, Anlos) 그리고 드뷔시 에튀드 전곡(디지털 릴리즈, 유니버설뮤직)이 있었다. 모두 에튀드라는 점이 흥미롭다.

“리스트 파가니니 에튀드는 20살 때였는데 선생님 권유로 선발이 돼서 얼떨결에 녹음하게 된 거고요, 쇼팽 에튀드는 사실 프로듀서가 저보고 자살행위라고 했었어요.(웃음) 첫 정식 음반 레퍼토리로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럼에도 제가 나이 들면 못 칠 텐데 한창일 때 남겨두면 좋겠다고 해서 녹음한 거였어요. 그리고 드뷔시 에튀드는 유학 시절에 second band를 거의 다 했지만 first band는 한국에 와서 학생 때문에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다른 건 어떤지 하고 헤쳐보다가 전체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음반 프로듀서가 흔하지 않은 레퍼토리라고 녹음을 제안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의 베토벤 소나타 음반 작업에 함께 한 피아노는 뵘젠도르퍼이다. 음이 지속되는 길이가 길어 노래하는 듯한, 사람 목소리 같은 느낌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비엔나풍의 비단결 같은 고상한 음색도 선택한 이유였는데 첫 번째 베토벤 음반 녹음 후 ‘이 피아노로 드뷔시의 곡을 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는 드뷔시 에튀드 음반 작업과 2017년 ‘프렌치 스쿨’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유학 시절 독일에서 베토벤을 치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반면에 드뷔시는 제가 하는 거의 모든 표현을 인정해 주더군요. 콩쿠르에 나가 프랑스 레퍼토리를 치면 많은 이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했냐고 물어보곤 했었으니까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만난 선생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에서 배웠던 클라우스 헬비히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유학하셨던 분이라 드뷔시를 비롯해 프랑스 음악 전반, 그 뒤의 문화까지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고 미국에서 만난 죄르지 쉼복 선생님도 프랑스에 망명해서 사셨던 분이라 프랑스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셨죠. 생각해 보면 베토벤이 다가오기 전 제일 먼저 저의 언어처럼 느낀 작곡가가 드뷔시였습니다.”



최희연

최희연은 현대음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가 현대 음악과 처음 조우한 것은 베를린 음대 유학 시절 우연히 윤이상의 작품을 연주하면서부터다. 베를린 음대 교수였던 윤이상의 작품을 비롯해 베를린은 상시 현대 음악 콘서트와 프로젝트가 열리는 도시였다. 베를린 윤이상 아카이브와 베를린 라디오, 스웨덴 라디오 방송국을 위해 녹음한 <윤이상 5개의 소품>이 그녀의 연주로 남아 있다. 귀국 후에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첫 상주 음악가로 활동했는데 쿠르탁, 구바이둘리나, 메시앙, 윌러, 진은숙, 강석희 등 현대 작곡가의 주요 작품들을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시리즈와 서울국제음악제 IBK 개관 연주에서 연주하였다. 최근 그녀는 서울시향과 마르쿠스 슈텐츠 지휘로 쿠르탁의 ‘quasi uns fantasia’를 재차 협연(2008년 초연)하였고 앙상블 노바, 아카데미2021등 현대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다.

지난 5월, 그녀가 디렉팅 하는 서울대 현대음악 시리즈 ‘아카데미2021’은 ‘TripleX’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트리플 엑스는 Triple과 Exchange의 합성어로 서울대 음대, 비엔나 음대, 시벨리우스 음대 세 학교의 국제 음악 교류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 ZOOM과 유튜브 채널 ‘Academy2021 SNU’를 통해 온라인 라이브로 공개해 주목 받았다.



“원래는 작년에 triple이 아닌 exchange 콘서트로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되면서, 올해 두 개의 exchange를 동시에 하는 triple exchange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세 학교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 정말 쉽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 이상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각 학교 작곡과 학생들의 아직 초언되지 않은 공모작과 각 학교가 추천한 해당 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작품을 서로 교환해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예를 들면 헬싱키에서 강석희 선생님 곡을, 서울에서 오스트리아 작곡가 곡을 연주한 거죠. 리허설은 연주자와 작곡가가 zoom을 통해 코멘트를 나누며 진행했고 파이널 연주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한된 커리큘럼 속 모두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하고 의미 있는 연주까지 마치니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지요”

추상적 음악의 명확한 본질

“젊었을 때는 학생들을 그저 열정으로 불도저처럼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지금 제가 이루지 못한 영역까지 이뤄낸 제자를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 인터뷰 답변 중

피아니스트 최희연은 1999년 서울대 음대 최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네이버tv의 ‘서울대 음대 레슨 노트’를 통해 그녀의 레슨 시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몇 편을 시청했다. 바흐부터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라벨까지 다양한 곡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학생 연주, 부분적인 티칭이 거의 편집 없이 담

겨 있어 자연스레 그녀의 레슨 스타일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작품에 대한 인터뷰 후 이어지는 레슨 영상에서 그녀는 주도하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끌고 나가도록 유도하는 모습이였다. 수시로 “브라보!”, “맛아!”, “그렇지!”로 호응할 뿐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서 질문을 건넨 후에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기다려주었다.

“음악이란 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면이 존재하죠. 전달하고 싶은 것이 단순하거나 확이 분명한 팩트라기보다는 은유적이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니 학생이 진짜 알아들었나 우려가 되곤 해요. 그래서 학생한테서 이해한 반응이 나오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라고 지시를 하기보다는 학생한테 자극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영상 속 그녀의 티칭도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매료된 것은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이였다. 풍부한 사색과 오랜 배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소 느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생생하게 다가왔다. 한편 그녀는 KBS 클래식 FM의 ‘KBS 음악실’에 출연, 연주와 함께 랙처를 선보인 바 있다. 속도감과 자극적인 멘트가 필수인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 편집이 가미되지 않은 영상물과 방송에서 그녀의 단어들은 더욱 빛을 발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연계와 교육 현장은 이미 변화에 가속이 붙은 상황. 스스로를 거북이 같다고 한 그녀에게 시대의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저는 SNS도 아직 적응 못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팬데믹이 생각보다 오래가면서 클래식도 온라인 매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트리플 엑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안이지만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고요. 솔직히 아직은 답을 모른 채 폭풍에 몸을 싣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베토벤을 생각하면 부쩍 응원과 조언을 받는 것 같아요. 그의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 제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최선의 오늘이 운명을 만든다

“지금 제 마음이야 죽을 때까지 연주하고
죽을 때까지 가르칠 것 같지만 그건 하늘에
달린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면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 삶이 운명 지어진 그 모습으로
있으리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답변 중

6세에 인천시향과의 협연으로 데뷔한 피아니스트 최희연은 국내 주요 콩쿠르를 석권한 후 18세에 유학을 떠나 베를린 음대와 인디애나 음대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유럽에서 Clara Haskil, Maria Callas, William Kapell, F. Busoni, G. B. Viotti, Epinal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냈고 Berliner Rundfunk, Das Sinfonie Berlin, Washington DC, Lausanne Chamber, Lorraine Philharmonie 등과 협연,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이태리, 미국, 일본, 호주의 연주홀에서 독주자로 무대에 섰다. 그녀는 귀국 후 강단에 서면서도 탐구적인 연주 활동에 매진, 국내 피아니스트의 중심 계보로 자리 잡았다. 음악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음악가로 불리길 원할까.

“피아니스트로서나 교수로서나 언제나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죠. 예술적 영감이 얼핏 허상을 좇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예술은 오락과 달리 본질(essence)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양 음악을 포함해 예술은 이성과 감정이 어우러져있는 정신적 활동이고 그래서 전수되는 거죠. 전수는 곧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지만 예술의 본질은 학문 안에 갇히지 않고 나누고 소통하는 데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

